

제300호

2020년 2월 19일(수)

발행인 윤창현 편집인 김홍수 · 이경원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61 전화 2113-4890~1 팩스 2113-4892

www.sbsunion.or.kr

#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전환 추진으로 인해 SBS에 미칠 악영향과 그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은 노동조합의 지적과 경고를 선동으로 폄훼하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지난 14일 노사협의회 석상에서 다루기로 한 TY 홀딩스 관련 노동조합의 질의에 대해 무성의하고 거친 답변을 여과없이 사내 게시판에 미리 공개하며 재차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나섰다.

사측 주장의 요지는 SBS 경영진은 TY 홀딩스 전환 계획을 지난 해 12월 중순 처음 인지했으며, 태영 측으로부터 SBS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등으로

인한 SBS 지배구조 변화의 문제는 자본시장법 상 구체적 해결 방안을 공개할 수 없으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믿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는 사측의 이러한 답변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영진의 내부문서를 입수했다. 문서 제보자는 경영진의 거짓 주장에 어이가 없어 관련 문서를 노동조합에 전달했으며, SBS 구성원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과연 누가 선동을 하고 있으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2면에 계속>



지난 14일 SBS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협의회

&lt;1면에 이어&gt;

노동조합이 입수한 문서는 지난 2016년 6월 당시 기획팀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문서 제목은 “태영 지주사 신설에 따른 영향 검토”이다. 문서 작성 시점만 봐도 지난 해 12월 중순 지주회사 전환 사실을 처음 알고 태영측에 문의했다는 사측의 답변이 거짓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문서가 작성된 2016년은 윤석민 당시 부회장이 SBS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해 책임경영을 외치던 시점으로, SBS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비전 혁신 대신 자신의 개인적인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방어의 사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방안을 SBS 구성원들을 감쪽같이 속여가며 비밀리에 추진해 왔고 경영진이 여기에 부화뇌동해 왔음이 명백하다.

이 문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당초 2017년 1월

Together we make Delight SBS

### 태영 지주사 신설에 따른 영향 검토

SBS 기획팀 2016. 6

**1. 태영 지주사 개요**

- 회사명: TY홀딩스 (기칭)
- 설립구조
  - 1단계: 태영건설 인적분할 후 TY홀딩스 신설
  - 2단계: 태영건설 지분 (부회장 27.1%) TY홀딩스 현물출자 (태영건설 TY홀딩스 자회사화)
- 주진일정
  - 2016. 6 분할계획 이사회, 2016. 11 분할승인 주총, 2017. 1 재상장

**<변경 전>      <변경 후>**

**2. SBS 및 계열회사 영향**

- SBS, 콘텐츠하브, 미디어넷, 인터내셔널 : TY홀딩스 손자회사 편입
- SBS 자회사 [MC/A&T/pooc/스토리웍스] : TY홀딩스 종손회사 편입  
→ TY홀딩스 종손회사 편입 대상 회사들에 대한 지분처리 이슈 발생

체크 포인트	이슈	내용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사 관련 출자규제 - 지주의 손자회사 경우, 종손회사 100% 보유 의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SBS의 MC/A&T/pooc 지분을 100% 미충족 (MC 40%, A&T 99.46%, pooc 40%)
② 방통위 이행각서 준수 (07년 SBS미디어홀딩스 설립 관련) *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방송법 제1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이 태영건설의 주식을 100%의 50이상 소유하거나 최다액출자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주식의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함. * 또한,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개인 및 법인)이 동 지주회사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주식의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으로 약속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룹 내부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형식적 최대주주 변경으로 이슈는 없을 것으로 예상 (단: 방통위 사전승인 획득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

출범을 목표로 비밀리에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 촛불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태영건설과 유착돼 있던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면서 일시 중단됐다가 윤석민 회장의 태영건설 회장 취임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태영건설의 SBS 사유화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구성원들의 저항에 일단 한 발 물러섰다가 총선 등으로 정치적 공백이 발생하고 여론이 분산되는 2020년, 문제의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서는 태영 지주사 개요, SBS 및 계열회사 영향, 중순회사 관련 검토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있으며, 2016년 당시 이미 윤석민 회장의 사적 이익을 위한 태영건설의 지주사 전환이 SBS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각 항목에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우선 2번 항의 SBS 및 계열회사 영향이라는 대목에서 TY홀딩스의 중순회사가 되는 SBS 자회사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에 놓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방송광고법상 40% 이상 지배가 불가능한 M&C를 포함해 A&T와 웨이브 등 SBS 자회사들이 공정거래법상 100%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문서에서는 이를 “TY홀딩스 중순회사 편입 대상 회사들에 대한 지분처리 이슈 발생”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TY홀딩스 출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경영진의 강변이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임이 더 분명해지는 대목이다.

또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와 지배력 강화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TY홀딩스 출범으로 인해 SBS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하나같이 SBS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임을 사측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이 문서에서 재차 확인되고 있다.

이 문서(3면 상단문서)에 따르면, 사측은 SBS 자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외반 가능성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5가지 방안을 검토했음이 확인된다. (가안)에서는 SBS가 수백억 원의 자금을 들여 자회사 지분을 100% 사들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자회사들을 매각하는 방안 까지 검토 대상이었다. 윤석민 회장 개인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빈사상태인 SBS가 추가출혈을 감수하거나, 아예 미디어사업 자체를 포기하다시피 하는 방안이다. 매각 방안 가운데는 SBS 자회사를 SBS 미디어홀딩스에 매각하는 방안까지도 포함돼 있다. 사측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 방안에 대해 재고의 가치도 없는 질문이라고 밝혔으나 드러난 사실은 이 방안을 이미 3년 여 전에 검토했다는 것이다.

(나안)에서는 SBS 미디어홀딩스를 통한 간접 지배 체제를 폐기하고 과거처럼 대주주에 의한 직접 지배 체제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SBS 자회사 지분 문제를 해소하는 두 가지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태영건설-SBS 미디어홀딩스-SBS로 이어지는 간접지배 방식을 TY홀딩스-SBS로 이어지는 직접지배 방식으로 바꿔 SBS 자회사 지분 규제를 피하자는 것이다. 이는 결국 태영건설이나 TY홀딩스나만 다를 뿐 과거 대주주의 직접지배 체제로 완전히 회귀하는 역행이다. 2004년 재허가 과정을 거치며 SBS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와사, 시청자 대표까지 참여해 구축한 소유 경영 분리 체제, 미디어홀딩스를 통한 간접지배 방식을 송두리째 폐기하는 방식이다. 이는 또한 지난 해 3월 태영건설 회장 취임과 함께 SBS와 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입으로 소유 경영 분리의 기본정신과 약속을 내용적으로 폐기한 윤석민 회장이 아예 제도적으로 소유 경영 분리의 틀을 폐기해 SBS를 완전히 사적으로 장악하는 형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안이 실행되다면 올 12월로 다가온 SBS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지난 2017년 윤석민 당시 부회장은 SBS 미디어홀딩스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발언한 바 있으며, 2019년 SBS 수익구조 정상화 논의 과정에서도 사측은 방통위의 반대로 미디어홀딩스 체제는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측도 이런 주장을 수용해 당시 수익구조 정상화 합의가 콘텐츠하브를 수직계열화하는 수순에

### 3. 종손회사 관련 검토

#### ( 가 ) 종손회사 지분 재편 통한 규제 충족

##### ○ SBS의 자회사 지분 100% 확보

- 타사의 제휴사업 지분 매각 가능성 희박 (pooq/KCP)
- MC의 경우, 미디어렙법 上 지분 40% 초과 소유 금지

##### ○ SBS의 자회사 지분 제휴사/타인에 매각

- SBS 사업시너지 상실 (MC/A&T)
- 미래 지분가치 상승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 (pooq/KCP)

##### ○ SBS의 자회사 지분 SBS미디어홀딩스에 매각

- SBS가 주도하는 사업이 SBS미디어홀딩스 산하로 이관 되는데 대한 내부 정서 (노조 등)
- MC의 경우, 미디어렙법 上 지주사의 지분 보유 불가
- SBS미디어홀딩스 자금여력 이유 (인수자금) \* 6/10 현재 351억 원 보유
- SBS 법인세 납부 필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 나 ) 법인합병 통한 규제 회피

##### ○ SBS미디어홀딩스 - SBS 합병

- 태영건설, '07년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대한 400억 원대 이연법인세 납부 불가피 (SBS미디어홀딩스에 대한 현물출자액 약 1,800억원 X 세율 약 24.2%)
-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시 추가 자금 소요
- 미디어넷, 콘텐츠허브의 신규사업 추진에 제약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됨)  
: 100% 자회사 외 합작사업/제휴사업 추진 불가

##### ○ TY홀딩스 - SBS미디어홀딩스 합병

- 태영건설, '07년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대한 400억 원대 이연법인세 납부 가능성
-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시 추가 자금 소요
- 미디어부문과 건설부문의 분리 지배에 제약

서 마무리된 것이다.

그런데 윤석민 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방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서 대주주와 사측은 자신들의 발언을 뒤집고, SBS 재허가 위기의 재발 가능성까지 있는 위험한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사측 비밀 문건에 담겨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문건에 담긴 방안들이 실제로 실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사측이 자본시장법 평계를 대며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전환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3년 전 SBS 구성원들 몰래 SBS 미래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문제적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사측과 대주주가 노동조합과 구성원들에게 무조건 믿어 달라는 맹목적 신뢰를 강요할 최소한의 명분 조차 상실했다.

경영진이 이미 3년 여 전부터 이런 부정적 가능성들을 검토하고도 SBS 구성원들을 감쪽같이 속이며 우리도 이번에야 알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는 이유는 결국 SBS의 미래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다 윤석민 회장의 사적 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현재 SBS 경영의 최우선 순위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측은 명심하라. SBS는 그저 자본시장법 평계를 대가며 대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마구 주무를 수 있는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다. SBS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리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 방송법에 의해 설립되고 성장한 지상파 방송사이다.

## 2016년 기획팀 문건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드러난 사측의 거짓말들

### 1. 태영건설 지주회사 전환 추진, 지난 해 12월 처음 알았다?

노사협의회 석상에서 박정훈 시장은 지난 해 12월 이전에는 자료사를 통해서 관련 설을 처음 접했다고 밝혔다. 거짓말이다. 위의 문서는 2016년 6월 박정훈 시장이 이미 공동대표이사였던 시점에 작성된 것이다. 대표 이사도 모르게 SBS 내부에서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전환 문제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만일 그랬다면 SBS는 자상파 방송사가 아니라 구멍가게라 해도 할 말이 없다.

### 2. TY홀딩스 전환은 SBS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역시 거짓말이다. 사측 문건에 이미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은 어느 경우라도 SBS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을 위협하는 소유경영 분리 체제 파괴를 전체로 구성돼 있다.

### 3. SBS 자회사를 TY홀딩스 계열로 매각하지 않을 것이다. 재고의 가치도 없는 질문이다?

노사협의회를 앞두고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위와 같이 밝혔다. 그러나 재고의 가치가 없다는 이 방안이 사측 문건에는 3년 여 전 실제로 검토됐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추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지난 해 3월 대주주가 콘텐츠허브 이사회를 징약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악속우반 행위를 벌인 이유가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라는 분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 4. TY홀딩스 전환으로 태영건설 직접 자배에서 벗어나 태영건설 재무구조

나 건설경기의 변동성 영향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SBS 안정성과 직결되는 시안이다?

경영진의 주장과 달리 노동조합이 확보한 문건에는 TY홀딩스 출범으로 거꾸로 미디어 부문과 건설부문의 분리 지배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명기돼 있다. 건설부문의 지배에서 벗어나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사측의 14일 입장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3년 전 문건에 나타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의 지주회사를 통해 윤 회장이 건설과 미디어를 동시에 지배하고 개인의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데 어떻게 태영건설로부터 SBS 경영 안정성과 독립성이 강화된다는 말인가? 이미 우리는 윤석민 회장이 지배해온 과거 미디어홀딩스 체제에서 엄청난 수익유출이 벌어져 SBS를 꼴병들게 했음을 체험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사측의 주장은 사측 문건이 반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 5. 노동조합의 주장은 선동이다. 저의가 의심스럽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TY홀딩스 문제와 관련해 별 일도 아닌 것을 침소봉 대해 SBS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며 저의가 뭐냐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설명했듯 어떤 방안을 택하든 SBS는 TY홀딩스 체제 출범으로 인해 심각한 충격에 봉착할 가능성이 사측 문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SBS 구성원의 생존권을 책임진 노동조합이 당연히 제기해야 할 질문에 대해 '선동'이니 '저의'니 하는 표현을 써가며 발끈하는 사측의 태도가 더 의구심을 살 뿐이다. 도대체 왜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로 SBS 구성원들을 바보 취급하는가? 무엇을 감추려 하는가?

공정언론  
실천상

## 2019 하반기 공정언론실천상 수상작

2019 하반기 공정언론실천상은  
 <드라마> 닥터탐정 <그것이 알고 싶다> ‘저수지에 잠긴 비밀–청년 이철규의 마지막 하루’ 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닥터탐정>을 연출한 박준우 조합원 (\*이광순 조합원 공동 수상)



<그것이 알고 싶다> ‘저수지에 잠긴 비밀–청년 이철규의 마지막 하루’ 편을 연출한  
 박경식 조합원과 홍정아 작가

<닥터탐정>은 산업현장의 부조리를 신랄하게 파헤쳐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고,  
 <그것이 알고 싶다> ‘청년 이철규의 마지막 하루 편’은 과거 국가 권력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의문사들에 대한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방송 언론의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힘찬 격려와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

###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응원합니다!



보도기술팀 노승화 조합원



보도본부 수원지국 이영춘 조합원

보도기술팀 노승화 조합원과 수원지국 이영춘 조합원께서 안식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로운 미래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